



## < 요약 >

### 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1) 개황

- '14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조 3,540억 달러
  - 중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한 M&A 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12년 이후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세계 해외직접투자금액 중 개발도상국의 비중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선진국의 비중은 '12년 이후부터 감소세 시현

#####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선진국) 투자정체가 지속되며 '14년에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 $\Delta$ 1.3%)한 8,228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
  - '07년 1.8조 달러의 최대 유출액을 기록한 이후 1조 달러를 하회하는 투자부진이 '14년도까지 이어지며 투자 정체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개발도상국) 중국,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자로 부상하며 전년대비 22.9% 증가한 4,681억 달러가 유출되어 역대 최대치 기록
  -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등 8개국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되는 등 개발도상국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세계 유출액의 34.6%를 차지
- (체제전환국) 저유가 및 루블화 평가절하 등에 따른 러시아의 투자 급감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31.1% 감소한 631억 달러의 유출액 기록
- (주요국) '14년 최대 투자유출국은 미국, 홍콩, 중국, 일본, 독일 순

###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전년대비 28.4% 감소한 4,98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회수 등으로 미국의 투자유입액은 전년대비 60% 감소한 924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단계 하락한 세계 3위의 투자유입국 지위 차지
- (개발도상국)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에는 6,814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이자 사상 최초로 투자유입규모가 선진국을 추월
  - 개발도상국 투자액의 68.3%가 아시아로 유입되었으며, 아시아 지역의 경우 전년대비 8.7% 증가한 4,653억 달러를 기록
- (체제전환국)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발생 등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금융제재 등의 여파로 전년대비 51.7% 감소한 481억 달러 기록
- (주요국) '14년 최다 투자유입국은 중국, 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 순

## 2.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 (1) 개 황

- 국경간 M&A 투자는 크게 증가한 반면, 그린필드 투자는 소폭 감소
  - '14년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대비 1.7% 감소한 6,956억 달러, M&A 투자는 27.6% 증가한 3,989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할 때 1/3~1/2 수준으로 본격적인 투자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 (2) 지역별 진입방식 동향

- 전 세계적으로 M&A투자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42%), 선진국(32%), 체제전환국(24%) 순으로 지역별 전체 투자 중 M&A 방식의 투자비중이 높음.

- 개발도상국 전체 M&A 투자액(1,521억 달러) 중 홍콩(590억 달러)이 38.8%의 비중을 차지

### (3) 산업별 진입방식 동향

-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광업부문의 투자가, M&A 투자의 경우는 금융 및 무역업 관련 투자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3.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사모투자펀드) 북미 및 유럽지역 내 M&A 투자를 확대하며 '14년 중 총 2,000억 달러의 투자액을 기록,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17%를 차지
- (국부펀드) '14년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근 5년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 (국영기업) 프랑스 GDF Suez 등 선진국 국영기업의 해외 투자자산 매각 및 투자금 회수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32% 감소한 1,180억 달러를 기록

## II.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14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06억 달러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3년 2.2%에서 '14년 2.3%로, 유출액 국가순위는 '13년 14위에서 '14년 13위로 소폭 상승
- (투자유입) '14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22.5% 감소한 99억 달러를 기록
  - 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중 우리나라의 비중은 '13년 0.9%에서 '14년 0.8%로, 유입액 국가순위는 '13년 24위에서 '14년 26위로 소폭 하락
- (지역별 구성) 세계 평균 대비 선진국 앞 투자비중은 6.5%p 높고,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앞 투자비중은 각각 4.0%p, 2.5%p 낮음.
  - 우리나라의 '14년도 투자대상 상위 5개국(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 앞 투자비중은 49.6%로 특정국가에 대한 집중도가 높은 편임.

- (업종별 구성) '14년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52.6%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광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비중 (20.4%)이 세계 평균(7.5%) 대비 2배 이상 높음.
- (진입방식별 구성) '14년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은 73.2%로, 세계 평균 (63.6%) 대비 높은 수준임.

### III.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

- (총 규모)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15년 1.37조 달러, '16년 1.48조 달러, '17년 1.72조 달러로 완만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5」는 '15년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하는 한편,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업종별 전망) 선진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을,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1차 산업과 함께 건설업, 통신업 등 사회기반구축 관련 사업을 유망산업으로 제시
  - \* 사업지원서비스업 :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등
- (국가별 전망) 주요 투자유출국은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순으로, 주요 투자유입국은 중국, 미국, 인도, 브라질 순으로 예상

### IV. 시사점

- 선진국 중심의 수요회복에 대응하는 선제적 해외투자전략 수립 필요
- 전통적인 그린필드형 투자뿐만 아니라 M&A 방식 투자 적극 고려
-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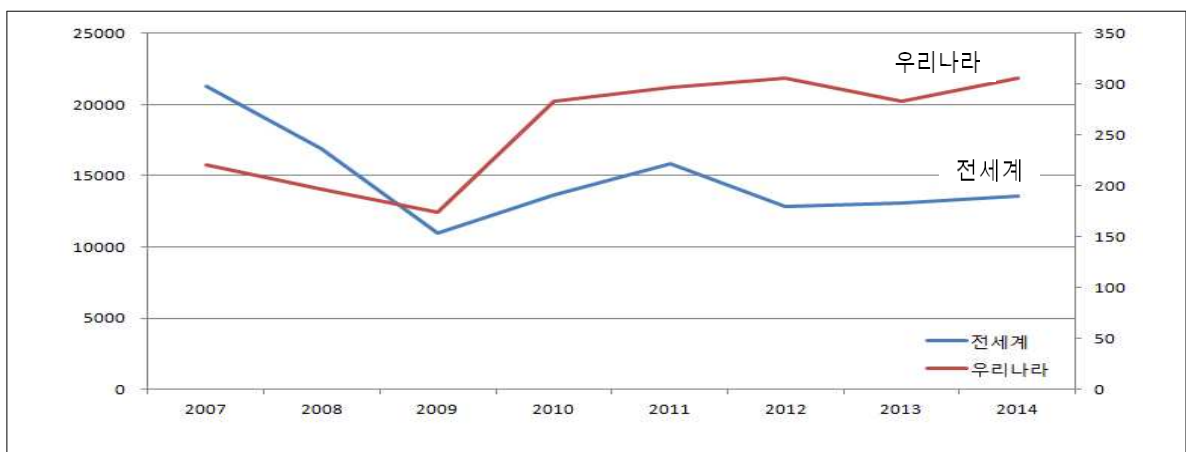
## 머리말

### □ 작성 배경 및 목적

- 본 보고서는 '14년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UNCTAD에서 발표한 「세계투자리포트 2015<sup>1)</sup>」에 따르면 세계 해외직접 투자는 '07년 2조 달러를 초과하는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서브프라임사태, 유럽 재정위기,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및 테이퍼링 등을 겪으면서 등락세를 보이다가 '14년에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35조 달러 수준을 기록
- 반면,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08~'09년에 해외직접 투자가 감소하였으나, '10년 이후 세계보다 빠른 회복추세를 보이며 '09년 174억 달러에서 '14년 306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 세계와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 또한 세계 대비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비중이 '09년 1.6%에서 '14년 2.3%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금액 순위도 '14년 기준 세계 13위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음.

1) 세계투자리포트(World Investment Report 2015)는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가 매년 발간하며, 각국의 통계기관(중앙은행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 통계 및 분석결과를 발표

-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세계 해외직접투자의 유출·입 동향을 지역별, 진입방식별, 투자자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코자 함.

□ 본 보고서 및 분석자료 해석시 유의점

- UNCTAD는 해외직접투자금액을 유출액(outflow)과 유입액(inflow)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통상 유출을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외국인직접투자로 지칭함.
- 「세계투자리포트 2015」에서는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에 대해 187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에 대해서는 207개국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음.
- 동 보고서에 인용된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와 차이가 있음<sup>2)</sup>.
  -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는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를 기반으로 하여 자체적으로 추정한 수치이며, 수출입은행의 통계는 해외직접투자 송금신고액의 합계금액이므로 다소 차이가 있음.

2) UNCTAD의 우리나라 통계와 수출입은행의 해외직접투자 통계의 차이는 다음 표와 같음.

(억 달러)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UNCTAD | 283  | 297  | 306  | 284  | 306  |
| 수출입은행  | 246  | 290  | 284  | 298  | 268  |

II

세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1) 개황

- '14년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전년대비 3.7% 증가한 1조 3,540억 달러 기록
  - 중국, 홍콩 등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그린필드형 투자 뿐만 아니라 M&A 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은 '12년 이후부터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증감율  |
|-----|--------|--------|--------|--------|--------|--------|------|
| 투자액 | 11,013 | 13,661 | 15,874 | 12,837 | 13,059 | 13,540 | 3.7% |

- 해외직접투자 유출은 개도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선진국이 6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입은 개발도상국이 55.5%의 비중을 차지, 사상 최초로 선진국 비중을 추월함.<sup>3)</sup>
  - (선진국)<sup>4)</sup> '14년 유출액은 8,228억 달러로 '12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입액은 북미 지역의 투자 급감(전년대비 △51.5%)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28.4% 감소한 4,988억 달러를 기록

지역별 해외투자액 구성

(억 달러)

| 구분    | 유출액   | 비중    | 유입액   | 비중    |
|-------|-------|-------|-------|-------|
| 선진국   | 8,228 | 60.8% | 4,988 | 40.6% |
| 개발도상국 | 4,681 | 34.6% | 6,814 | 55.5% |
| 체제전환국 | 631   | 4.6%  | 481   | 3.9%  |

3) 유출액 기준 개발도상국의 세계 대비 비중은 '10년 25.0%에서 '14년 34.6%로 상승하였으며, 유입액 기준으로는 '10년 43.7%에서 '14년 55.5%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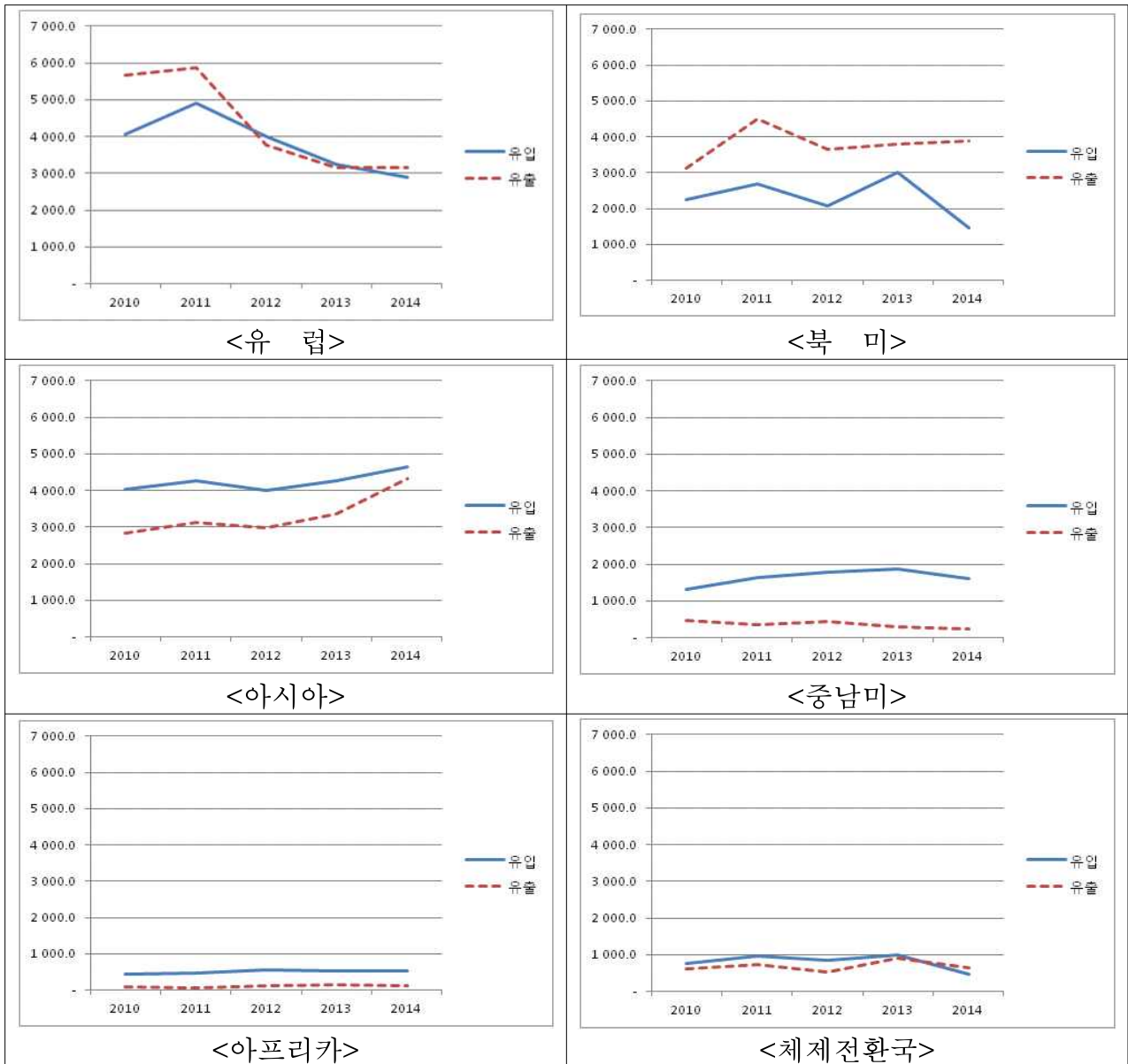
4) WIR에서는 EU 28개국, 비EU 유럽 3개국(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캐나다, 미국, 호주, 버뮤다,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를 지칭



- (개발도상국)<sup>5)</sup>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주요 투자자로 부상함에 따라 유출액은 전년대비 22.9% 증가한 4,681억 달러를 기록. 유입액은 전년대비 1.6% 증가한 6,81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유입액의 55.5%를 차지
- (체제전환국)<sup>6)</sup> 지역분쟁발생 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른 투자 위축 등으로 유출액 및 유입액 모두 전년대비 각각 31.1%, 51.7% 감소한 631억 달러 및 481억 달러를 기록

### 지역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동향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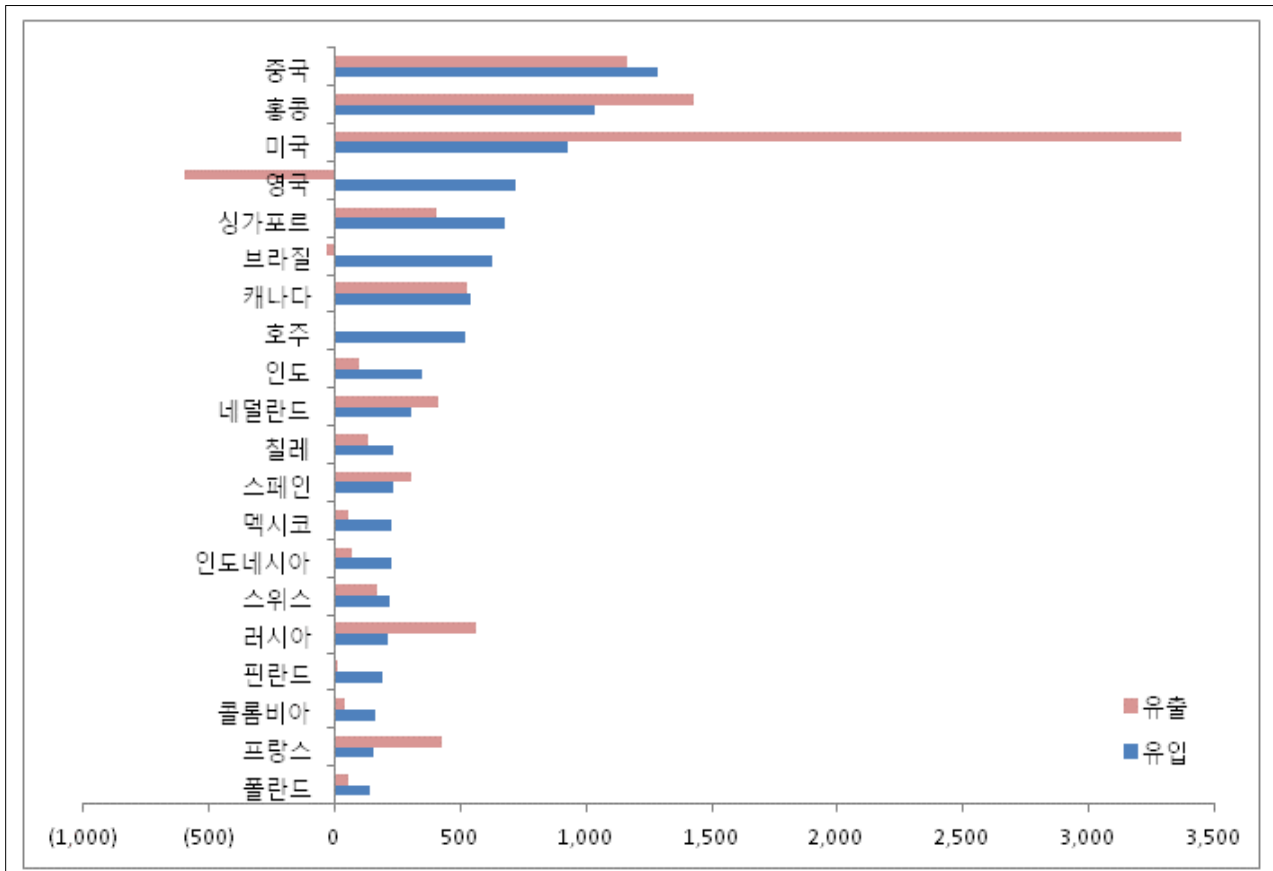


5)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에 포함

6)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몬테니그로, 마케도니아, 조지아, 구CIS 11개국(러시아 포함)을 지칭

## 상위 20대 해외직접투자 국가별 '14년도 유출입 금액

(억 달러)



### UNCTAD FDI 통계의 경유 자본(transit FDI) 처리

□ 최근 다국적기업들이 역외금융센터(Offshore Financial Center)\* 및 SPE(Special Purpose Entities)를 이용한 투자를 활발히 진행함에 따라, 경유자본으로 인한 투자 금액의 이중집계, 투자흐름 왜곡 등의 현상이 발생

\* 역외금융센터란 버진 아일랜드, 케이만군도 등의 국가들로서, 금융·외환 등의 거래에 대해 조세 등의 규제를 면제·축소해 줌으로써 비거주자간 금융거래의 중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을 통칭

○ 이에, UNCTAD FDI 통계에서는 역외금융센터 및 SPE 관련 수치를 제거한 통계수치 사용

## (2)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 ① 선진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07년 1.8조 달러의 최대 유출액을 기록한 이후 1조 달러를 하회하는 투자부진이 '14년에도 이어지며 투자 정체는 지속되는 양상을 보임.
- 선진국 38개국 중 19개국에서 투자가 증가.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한 M&A 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였으나, 신규 투자분과 기존 투자 회수분이 서로 상쇄되어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소폭 감소(△1.3%)한 8,228억 달러를 기록

####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 유출액 규모              | 국 가 명  |
|---------------------|--|
| 1,000억 달러 초과        | 미국, 일본, 독일   |
|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 캐나다  |
|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 프랑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이탈리아,<br>노르웨이,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

- (투자업종) 금융업을 중심으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광업 투자는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글로벌 수요 둔화 등으로 감소
- (북미 동향) 기업들의 해외투자 확대에 따라 '14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3,896억 달러 기록
  - (미국) 다국적기업의 재투자이익 증가에 따라 '14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2.6% 상승한 3,369억 달러를 기록하며, '13년에 이어 세계 최대 투자 유출국의 지위를 유지
- (유럽 동향) 금융위기 이후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해 왔으나, '14년 유출액은 전년(3,168억 달러)과 비슷한 3,159억 달러 기록
  - (EU) 독일이 전년대비 272.7% 증가한 1,122억 달러를 투자하며 유럽 최대 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영국, 룩셈부르크 등 전통적 주요 투자국의 투자 둔화로 전체 투자금액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2,801억 달러를 기록

- (그외국 동향) 전년대비 14.9% 감소한 1,173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하며, 감소세로 전환
- (일본)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 대한 투자 축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16.3% 감소한 1,136억 달러의 유출액을 기록
  - '11년 이후 지속되어 온 투자 증가세를 마감하였으며, 전년대비 두단계 하락한 세계 4위 투자유출국의 지위를 차지

② 개발도상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전년대비 22.9% 증가하여 역대 최대치인 4,681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14년 최초로 세계 유출액의 30% 이상(34.6%)을 차지
- 개발도상국 134개국 중 52개국에서 투자가 증가한 가운데, 중국, 홍콩, 한국,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칠레 등 8개국이 세계 20대 투자국에 포함

유출액 규모별 투자국 분포

| 유출액 규모              | 국 가 명                         |
|---------------------|-------------------------------|
| 1,000억 달러 초과        | 홍콩, 중국                        |
| 500억 달러 ~ 1,000억 달러 | -                             |
| 100억 달러 ~ 500억 달러   | 싱가포르, 한국, 말레이시아, 쿠웨이트, 칠레, 대만 |

- (투자업종) 제조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아시아 동향) 아시아계 다국적기업의 투자 확대 등에 힘입어 '14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28.7% 증가한 4,316억 달러를 기록
- (동아시아) 최근 투자유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12년부터 유출액이 유입액을 초과하는 투자 순유출상태가 지속 중이며, '14년에는 전년대비 34.3% 증가한 3,025억 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3,000억 달러를 돌파

- (중국) '14년 유출액이 전년대비 14.9%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1,160억 달러를 기록. 서비스업종에 대한 M&A투자를 공격적으로 전개하며 유입액 보다 유출액이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일대일로(一帶一路)' 전략 추진 및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등으로 향후 글로벌 인프라사업에 대한 투자 증가 전망
- (홍콩) 다국적기업의 M&A 투자활성화로 인해 '14년 유출액이 전년대비 76.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인 1,427억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2위의 투자유출국으로 부상
- (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도 내 다국적기업의 제조업(자동차, 화학제품 등) 투자확대 등에 힘입어 '14년 유출액은 전년대비 400.4% 증가한 107억 달러 기록
- (동남아시아) 전년대비 19.2% 증가한 801억 달러의 투자유출액을 기록했으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동지역 유출액의 약 60% 차지
- (중남미 동향) 멕시코와 콜롬비아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 감소 및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대부투자 감소로 전년대비 18.1% 감소한 233억 달러 기록
- (아프리카 동향)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대비 18.0% 감소한 131억 달러를 기록. 앙골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이지리아 등이 주요 투자국으로 부상

### ③ 체제전환국의 투자유출 동향

- (투자액) 정세 불안 및 원유가격 하락, 루블화 평가절하 등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투자가 크게 감소하며 '14년 투자액은 전년대비 31.1% 하락한 631억 달러를 기록. '15년에도 경제 회복 지연 등으로 투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러시아(89%), 카자흐스탄(6%), 아제르바이젠(4%) 등 3개국이 체제전환국(14개국) 전체 투자액의 대부분을 차지
- (투자업종) 주투자자는 러시아의 에너지기업들로서, 자국의 천연자원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한 가공, 저장 및 운송설비, 유통망 구축 등에 주로 투자

### (3)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 (선진국) 선진국 앞 유입액은 전년대비 28.4% 감소한 4,988억 달러 수준으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부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음.
  - (미국)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회수<sup>7)</sup>로 인해 유입액은 전년대비 60.0% 감소한 924억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3위의 투자처로 두 단계 하락
  - (EU)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입액이 감소하여 전년대비 11.3% 감소한 2,576억 달러를 기록. 영국은 722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세계 4위(EU국가 중 1위)의 투자유입국 지위를 차지
  - (일본) 전년대비 9.3% 감소한 21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투자유출액 규모(1,136억 달러) 대비 1.8%에 불과
-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으로의 유입은 '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4년에는 역대 최대치이자, 글로벌 전체 유입액의 55.5%에 달하는 6,814억 달러를 기록
  - (아시아) 지역정세 불안 등으로 6년 연속 투자 유입이 감소중인 서아시아<sup>8)</sup>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유입액이 증가하여 '14년 아시아 지역의 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8.7% 증가한 4,653억 달러를 기록
    - (중국 및 홍콩) 서비스업종에 대한 투자유입 증가에 힘입어 전년대비 각각 3.7%, 39.0% 증가한 1,285억 달러 및 1,033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미국을 제치고 나란히 세계 1위와 2위의 유입국으로 부상
    - (아세안) 전년대비 5.4% 증가한 1,328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하며 '11년 이후 투자 증가세 지속
  - (중남미) '09년 이후 투자유입액이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왔으나, '14년 국경간 M&A 투자 감소 및 원자재 가격 하락 등에 따라 전년대비 14.4% 감소한 1,594억 달러의 유입액을 기록

7) 영국의 다국적기업 보다폰(Vodafone)의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 와이어리스社 지분 매각(약 1,300억 달러) 등에 따른 대규모 투자금액 회수 발생

8) 바레인,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팔레스타인, 시리아, 터키, UAE, 예멘

- (중미) '13년 대규모 M&A 거래의) 영향으로 급증했던 유입액이 '14년에는 39.7% 감소하여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334억 달러를 기록
- (남미)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아르헨티나, 페루, 볼리비아 등의 광업 투자 부진으로, '14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4.2% 감소한 1,207억 달러를 기록하며 2년 연속 감소세 시현
- (아프리카)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취약한 경제구조 및 원자재 가격 불안정 등의 요소가 투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며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539억 달러를 유지
- (체제전환국)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분쟁 발생에 따른 서방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및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 등의 여파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앞 유입액이 전년대비 각각 69.7% 및 90.9% 하락함에 따라 '14년 유입액은 전년대비 51.7% 감소한 481억 달러를 기록
- (최다유입국) 중국, 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 순으로, 영국이 전년대비 246억 달러가 증가하며, '13년 9위에서 '14년 4위로 상승함. 우리나라는 '14년 27위(98억 달러)를 기록하며, '13년 25위(127억 달러)에서 2단계 하락

### 최근 5년간 지역별 유입액 추이

(억 달러)

| 지 역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전년대비   |
|-----------|--------|--------|--------|--------|--------|--------|
| 세 계       | 13,281 | 15,637 | 14,029 | 14,672 | 12,283 | △16.3% |
| 선 진 국     | 6,732  | 8,274  | 6,787  | 6,969  | 4,988  | △28.4% |
| 유 럽       | 4,048  | 4,897  | 4,007  | 3,255  | 2,888  | △11.3% |
| 북 미       | 2,264  | 2,695  | 2,089  | 3,013  | 1,463  | △51.5% |
| 기 타       | 419    | 681    | 690    | 699    | 637    | △8.9%  |
| 개 발도상국    | 5,799  | 6,391  | 6,390  | 6,708  | 6,814  | 1.6%   |
| 아 프 리 카   | 441    | 477    | 564    | 540    | 539    | △0.1%  |
| 아 시 아     | 4,019  | 4,253  | 4,008  | 4,279  | 4,653  | 8.7%   |
| 중 남 미     | 1,317  | 1,639  | 1,780  | 1,862  | 1,594  | △14.4% |
| 대 양 주     | 22     | 23     | 37     | 28     | 28     | △0.3%  |
| 체 제 전 환 국 | 750    | 973    | 851    | 996    | 481    | △51.7% |

9) '13년 벨기에 기업의 멕시코 맥주회사 인수를 위한 M&A투자(155억 달러) 등

## 2. 진입방식별(그린필드 및 국경간 M&A) 해외직접투자 동향

### (1) 개 황

□ '14년에는 국경간 M&A<sup>10)</sup> 투자액<sup>11)</sup>은 크게 증가한 반면, 그린필드 투자액은 소폭 감소

- 그린필드 투자는 전년 대비 1.7% 감소한 6,956억 달러, M&A 투자는 다국적기업의 대규모 투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7.6% 증가한 3,989억 달러를 시현함.

\* 10억불 이상 규모의 M&A 거래건수 : ('13년) 168건 → ('14년) 223건

#### 진입방식별 해외직접투자액 추이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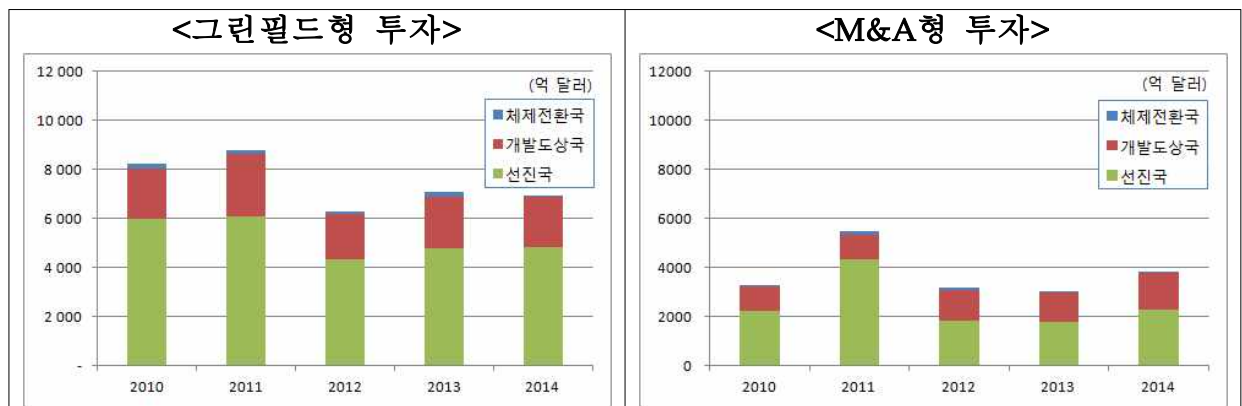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증감율   |
|------|-------|-------|-------|-------|-------|-------|
| 그린필드 | 8,248 | 8,794 | 6,308 | 7,074 | 6,956 | △1.7% |
| M&A  | 3,471 | 5,534 | 3,282 | 3,125 | 3,989 | 27.6% |

### (2) 지역별 진입방식 동향

□ 전 세계적으로 M&A투자 비중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개발도상국(42%), 선진국(32%), 체제전환국(24%) 순으로 지역별 전체 투자액 중 M&A 방식의 투자비중이 높음.

\* '14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 중 M&A 비중 : 36%

#### 진입방식에 따른 해외직접투자 구성 추이



10) 각국내 M&A를 제외한 국경간 M&A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

11) 대외공시된 총 예상투자액으로 미공시 투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실제 당해연도 송금액과는 차이가 날 수 있음.



- 세계 M&A 투자의 38%는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발도상국 간의 M&A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sup>12)</sup> 또한 활발해지는 추세임.
- **(그린필드)** '14년 중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 중국,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며,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중국과 미국 2개국에 불과
- **(M&A)** '14년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미국과 홍콩 2개국이며, 전년도 M&A 투자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이었던 일본과 중국의 경우 전년 대비 각각 18%, 21% 감소한 450억 달러 및 396억 달러를 기록
  - 투자유입규모가 500억 달러 이상인 국가는 524억 달러를 기록한 중국이 유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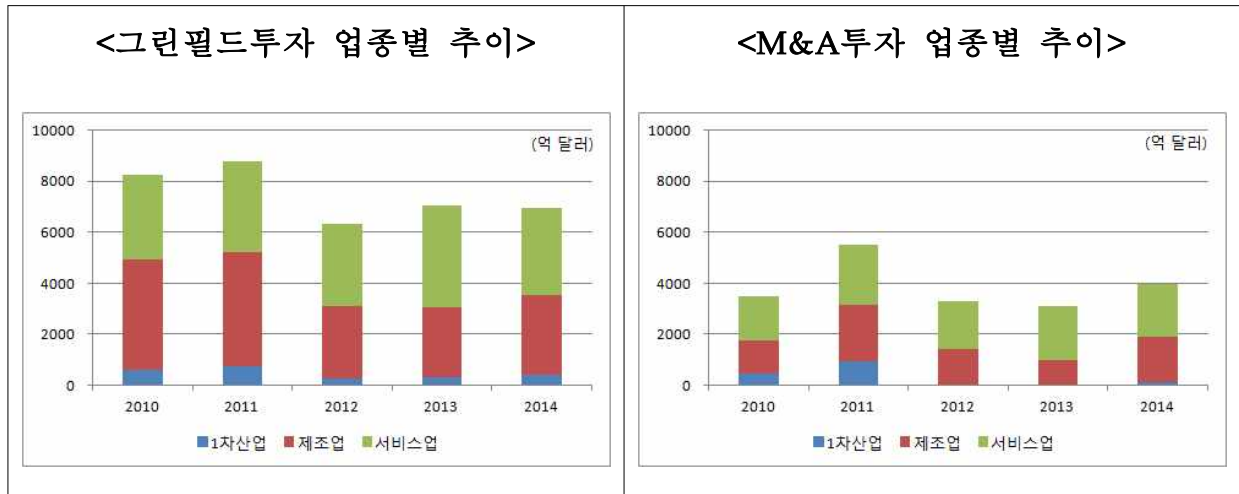
## (2) 산업별 진입방식 동향

- **그린필드 방식**의 경우 **광업부문의 투자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M&A 방식**의 경우 전통적으로 진입장벽이 높았던 서비스업에 대한 각국의 투자규제가 과거에 비해 완화됨에 따라 **금융 및 무역업종 관련 투자가 활발한 모습을 보임.**
- **(1차 산업)**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광업투자가 활발한 양상을 보이며 그린 필드 투자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24억 달러를 기록
- **(제조업)** 그린필드 및 M&A 투자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4%, 81% 증가. 그린필드 투자의 경우 석유제품, 기계장비 및 자동차 부문에, M&A 투자의 경우 전기전자, 화학 및 제약 부문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

12) 싱가포르 국부펀드(GIC)의 미국 부동산투자신탁 IndCor Properties 인수(81억 달러) 등

- (서비스업) 그린필드 투자는 사업지원서비스업 및 전기·가스·수도업 분야의 투자가 급감하며 전년대비 15% 감소한 반면, M&A 투자는 건설 및 정보통신업종의 투자 감소를 전기·가스·수도업, 무역 및 금융업 부문의 투자 증가가 상쇄하는 모습을 보이며 전년대비 2% 감소

### 진입형태별·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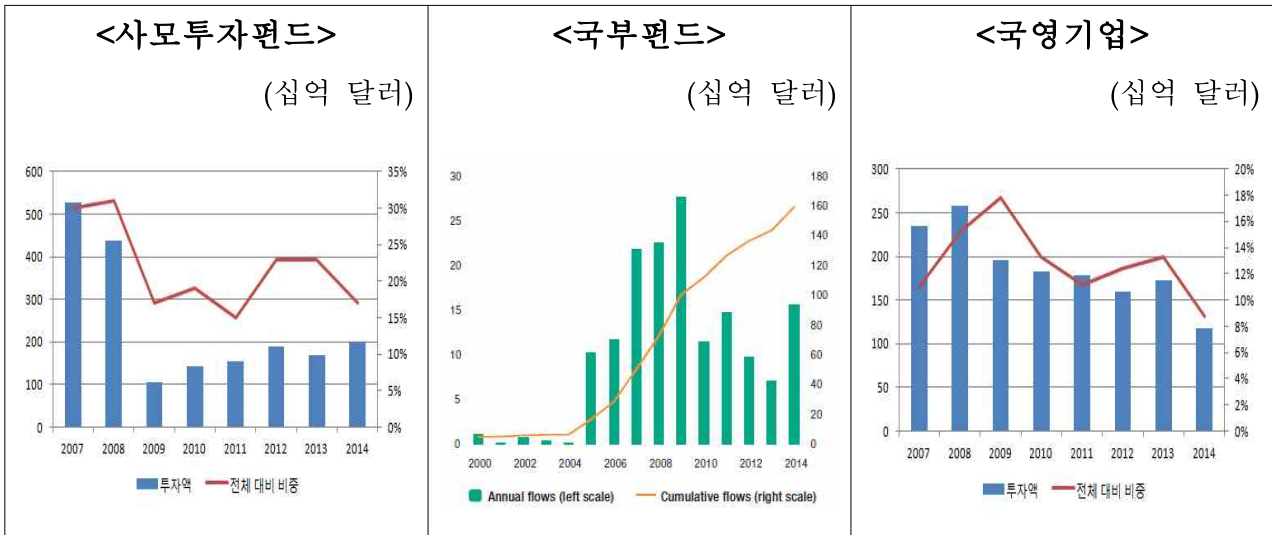


### 3.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사모투자펀드) '14년 중 총 2,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의 17%를 차지. 이는 전년대비 6%p, 금융위기 이전인 '07년과 비교할 때 13%p 낮은 수준임.
  - 주로 북미 및 유럽지역 내 M&A거래에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 한국 등 아시아국가에 대한 투자금액 또한 증가 추세임.
- (국부펀드) '14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6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근 5년동안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 그러나 세계 100여개 국부펀드의 운용자산 규모(7조 달러)와 비교할 때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
  - 주요 투자펀드로는 싱가포르 GIC, 중국 CIC, 카타르 Qatar Holding 등이 있으며, 최근 선진국뿐 아니라 신흥시장 내 인프라투자를 늘리고 있음.

□ (국영기업) 프랑스 GDF Suez 등 선진국 국영기업의 해외투자액 회수 및 채굴업 등 특정 산업 내 외국인 지분소유에 대한 중남미지역 정부의 규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14년 국영기업의 그린필드 및 M&A 투자는 전년 대비 각각 18%, 39% 감소한 490억 달러 및 69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투자자 유형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 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

- (투자유출) 우리나라의 '14년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한 306억 달러 기록<sup>13)</sup>
- 유출액 기준 세계 순위 및 비중은 상승하였으나, 개발도상국 유출액 대비 비중은 소폭 하락(0.9%p)함.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 동향

(억 달러)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투 자 액    | 174    | 283   | 297  | 306  | 284   | 306  |
| 증 가 율    | △11.2% | 62.2% | 5.0% | 3.1% | △7.4% | 7.8% |
| 세 계 비 중  | 1.6%   | 2.1%  | 1.9% | 2.4% | 2.2%  | 2.3% |
| 개발도상국 비중 | 7.4%   | 8.3%  | 8.3% | 8.6% | 7.4%  | 6.5% |
| 세 계 순 위  | 17     | 15    | 16   | 12   | 14    | 13   |

- (투자유입) 우리나라의 '14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은 전년대비 22.5% 감소한 99억 달러 기록
- 유입액이 전년대비 다소 큰 폭으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비중 및 순위는 소폭 하락에 그침.

####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입 동향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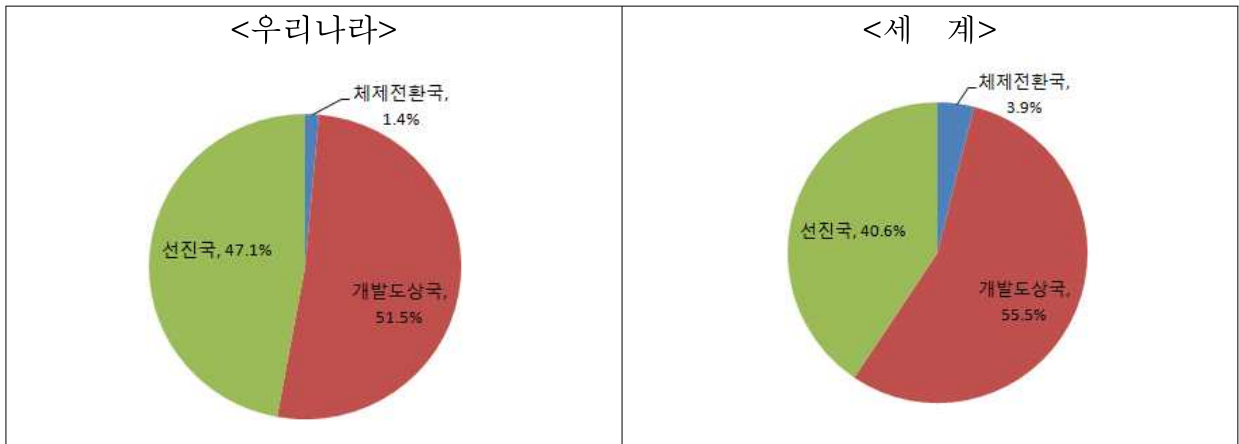
| 구 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유 입 액    | 90     | 95   | 98   | 95    | 128   | 99     |
| 증 가 율    | △19.4% | 5.3% | 2.9% | △2.8% | 34.4% | △22.5% |
| 세 계 비 중  | 0.8%   | 0.7% | 0.6% | 0.7%  | 0.9%  | 0.8%   |
| 개발도상국 비중 | 1.9%   | 1.6% | 1.5% | 1.5%  | 1.9%  | 1.5%   |
| 세 계 순 위  | 28     | 24   | 33   | 31    | 24    | 26     |

13) 'Ⅲ.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동향에서 인용하는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유출입 금액은 UNCTAD 자료에서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의 국제수지표상 해외직접투자수지 금액에 수익재투자를 반영한 금액임.

□ (지역별 구성14) 우리나라는 선진국 앞 투자비중이 세계 평균대비 6.5%p 높음.

- 우리나라의 '14년 해외직접투자 지역별 비중은 선진국 47.1%, 개발도상국 51.5%, 체제전환국 1.4%로, 세계 평균수치와 비교할 때 개발도상국 및 체제 전환국 앞 투자비중이 각각 4.0%p, 2.5%p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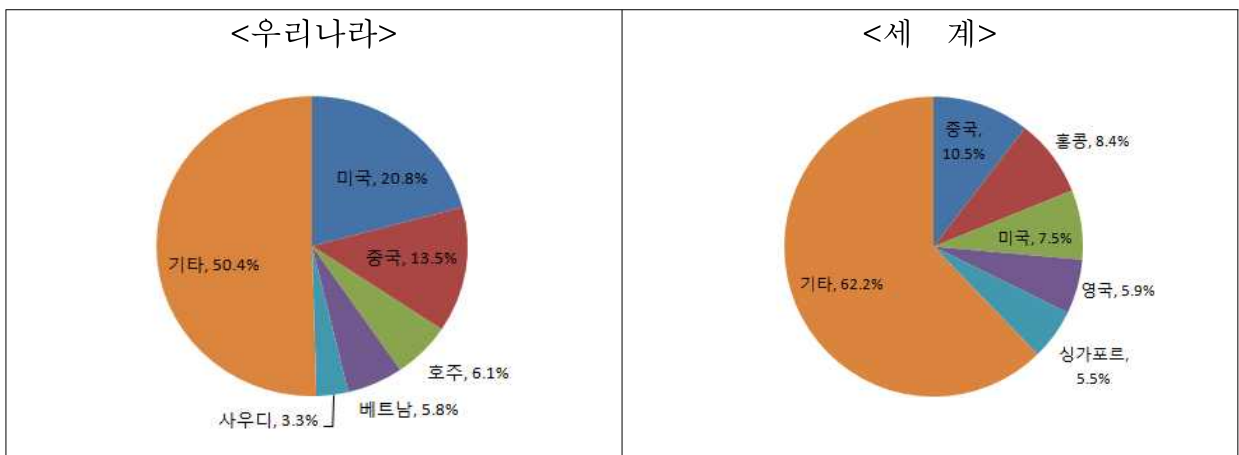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세계 지역별 투자 비교



□ (국별 구성) '14년 우리나라의 5대 투자대상국은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사우디아라비아이며, '14년 세계 전체 기준 5대 투자대상국은 중국, 홍콩, 미국, 영국, 싱가포르임.

- 우리나라의 상위 5개 투자국 앞 투자비중은 49.6%로 전년 대비 5.6%p 감소했으나, 여전히 특정국가 집중도는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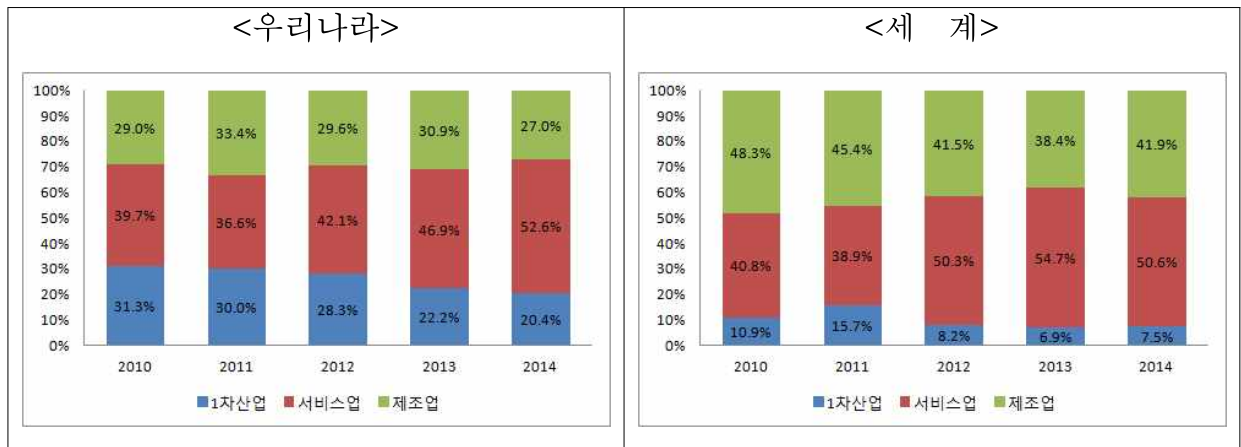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세계 상위 5개 투자대상국 투자비중



14) 우리나라의 지역별·국별·업종별·진입방식별 해외직접투자 동향은 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 통계를 활용하였으며, 투자액은 유출액, 투자대상국은 최종투자대상국을 기준으로 작성함.

- (업종별 구성) '14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투자비중은 52.6%로, '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또한, 광업을 중심으로 한 1차 산업의 비중이 세계 대비 2배 이상 높음.
- 서비스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부동산업,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세계 전체 기준으로는 금융보험업, 컨설팅 등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기·가스·수도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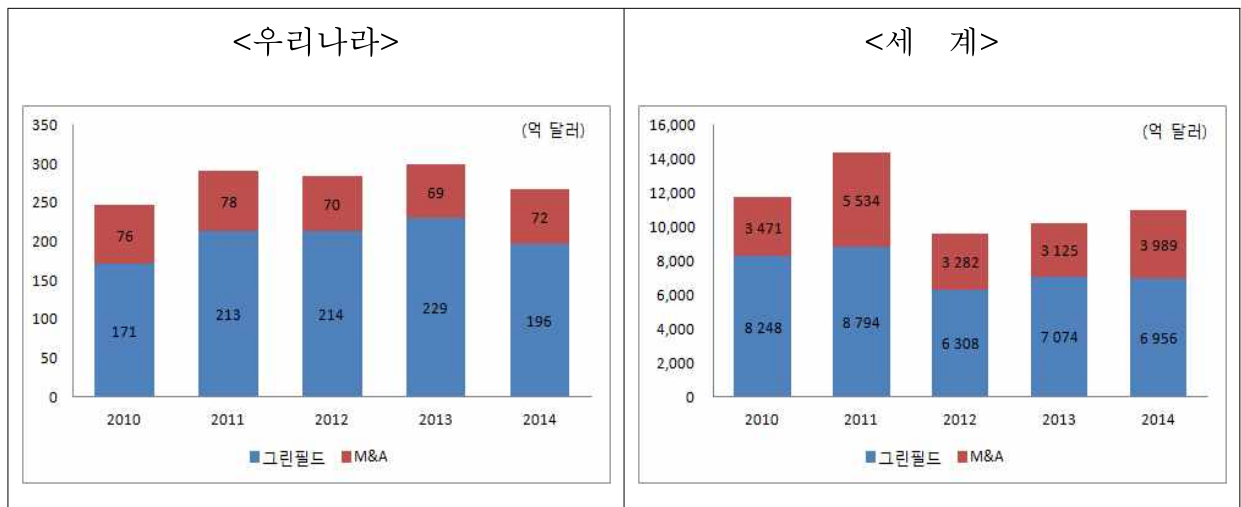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세계 업종별 투자유출 비교**



- (진입방식별 구성) 우리나라의 '14년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 비중이 73.2%로, 세계 평균(63.6%) 대비 높은 수준을 보임.

\* '14년 한/중/일 M&A형 투자비중 비교 : 한국 27%, 중국 38%, 일본 46%

**우리나라와 세계 진입방식별 투자유출 비교**



## IV

### 세계 해외직접투자 향후 전망<sup>15)</sup>

□ (총투자규모) '17년까지 세계 해외직접투자는 **완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세계투자리포트 2015」에 따르면, 향후 세계 해외직접투자액(유입액 기준)은 '15년 1.37조 달러, '16년 1.48조 달러, '17년 1.72조 달러로 **완전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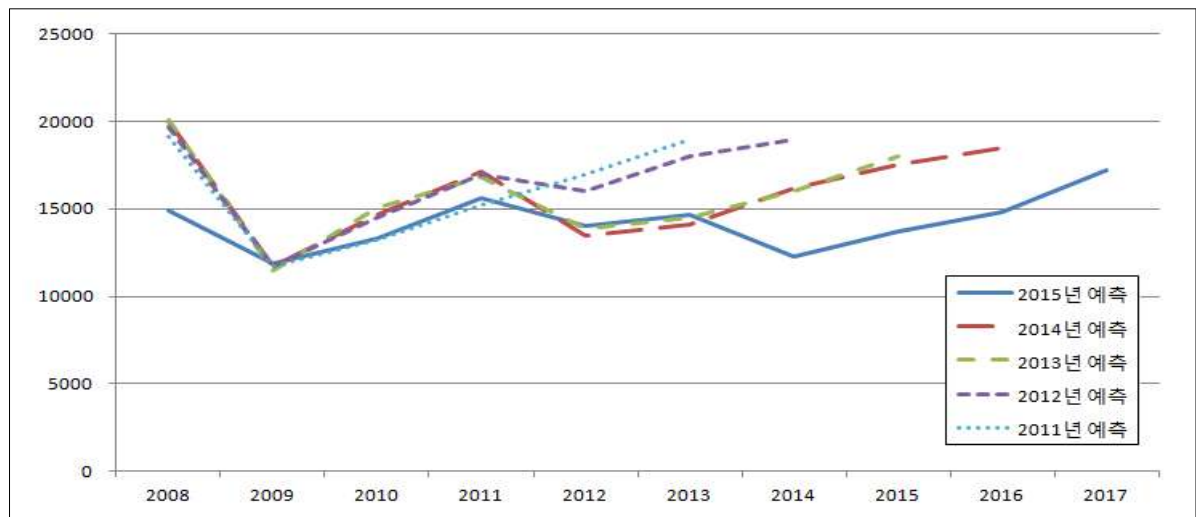
-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거시경제 지표 개선, 각국 정부의 다양한 투자 장려 정책 실시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의 투자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설문조사결과<sup>16)</sup>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향후 3년간 세계 해외직접투자 규모의 증가세를 예측

- 다만, 신흥국 경제구조의 취약성 및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해외 직접투자 회복세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가능

#### 세계 해외직접투자 전망

(억 달러)



○ (선진국) '15년 선진국에 대한 투자가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선진국이 주요 투자 유입지역으로 부상

15) 「세계투자리포트 2015」에서는 「UNCTAD's Business Survey」 결과 및 UNCTAD 자체모형 예측 수치를 기반으로 해외직접투자 전망(유입액 기준)을 작성하였으며, 본 보고서의 전망 부분도 「세계투자리포트 2015」의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함.

16) UNCTAD와 McKinsey가 89개국 1,000여명의 기업 임원을 대상으로 실시

- 특히, '15년 4월말 기준 국경간 M&A 거래금액은 전년동기 대비 약 4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당분간 개발도상국의 다국적기업을 중심으로 선진국 기업에 대한 M&A 거래가 활발히 일어날 것으로 전망
-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는 향후 3년간 평균 3%대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되나, 체제전환국에 대한 투자의 경우 서방의 對러시아 금융·경제제재, 저유가 상황 지속 등의 영향으로 '16년 이후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시현할 것으로 전망됨.

경제권역별 해외직접투자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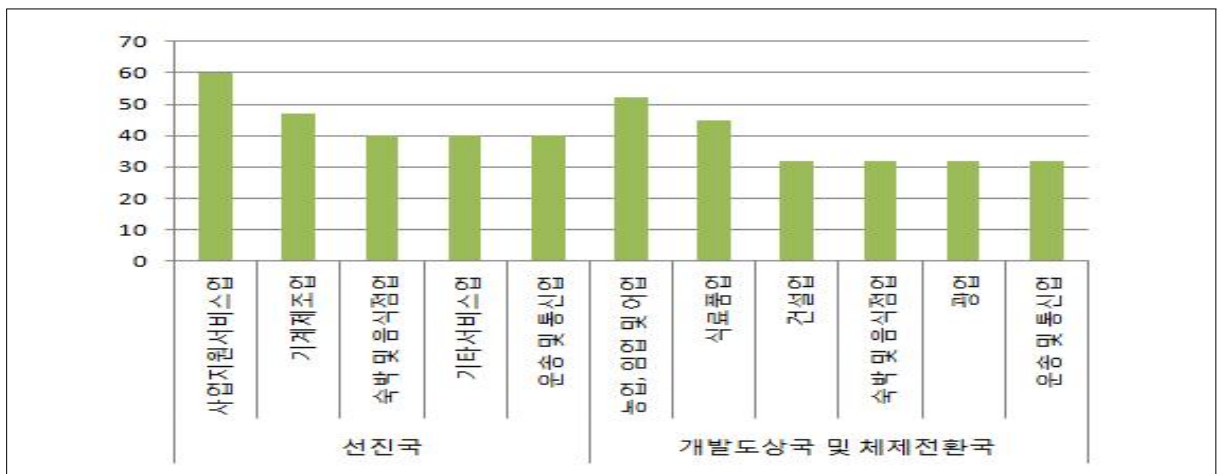
(억 달러)

| 구 분   | 투자액    |        |                   |                   |                   | 평균        |           |
|-------|--------|--------|-------------------|-------------------|-------------------|-----------|-----------|
|       | 2013   | 2014   | 2015 <sup>f</sup> | 2016 <sup>f</sup> | 2017 <sup>f</sup> | 2005~2007 | 2009~2011 |
| 세 계   | 14,670 | 12,280 | 1,3680            | 14,840            | 17,240            | 13,970    | 13,590    |
| 선 진 국 | 6,970  | 4,990  | 6,340             | 7,220             | 8,430             | 9,170     | 7,180     |
| 개발도상국 | 6,710  | 6,810  | 7,070             | 7,340             | 8,500             | 4,210     | 5,610     |
| 체제전환국 | 1000   | 480    | 450               | 470               | 530               | 600       | 810       |

- (업종별) 선진국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등 서비스업을 유망업종으로 예상한 반면, 개발도상국 및 체제전환국에 대해서는 농업, 음식료업, 광업 등 1차 산업과 함께 건설업, 통신업 등 사회기반 구축을 위한 인프라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전망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전망

(%)





- 한편, '15년 중 금융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이 가장 높은 투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통신, 의료 및 제조업은 '16년 이후부터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별) 중국의 경제성장률 둔화 및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불안 우려 등으로 향후 3년간은 선진국 앞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
  - (주요 투자유출국) 미국, 중국, 영국, 독일 순으로 전망되었으며,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를 제외하고 모두 선진국으로 선정됨.
  - \* 우리나라는 전년대비 3단계 하락한 12위를 기록
  - (주요 투자유입국) 중국과 미국이 전년도에 이어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주요 투자유출국 전망과 달리 10대 유망 투자유입국에 6개의 개발도상국이 포함됨.

#### 주요 투자유출국 및 투자유입국 전망

| 구 분 | 투자유출국       | 투자유입국     |
|-----|-------------|-----------|
| 1위  | 미국 (1)      | 중국 (1)    |
| 2위  | 중국 (2)      | 미국 (2)    |
| 3위  | 영국 (3)      | 인도 (4)    |
| 4위  | 독일 (5)      | 브라질 (5)   |
| 5위  | 일본 (3)      | 싱가포르 (17) |
| 6위  | 프랑스 (7)     | 영국 (7)    |
| 7위  | 인도 (6)      | 독일 (6)    |
| 8위  | 아랍에미리트 (10) | 홍콩 (-)    |
| 9위  | 스페인 (15)    | 멕시코 (13)  |
| 10위 | 이탈리아 (16)   | 호주 (10)   |

\* 괄호안은 전년도 순위이며, 우리나라는 투자유출국 11위, 투자유입국 17위 차지

-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 및 미국의 금리인상 전망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선진국 중심의 수요 회복에 대응하는 선제적 해외투자전략 수립 필요
  - 향후 선진국내 사업지원서비스업(컨설팅, 시설관리 등), 기계장비업, 운수·보관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 투자유망 사업위주로 투자전략 재편 및 선제적 투자 확대 추진
    - '14년 기준 우리나라의 선진국 앞 주요 투자업종은 부동산업, 광업, 금융보험업 순으로 파악됨.
  - 선진국 외에도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및 이란 경제제재 해제(2016년 상반기 예상) 등 투자환경 변화에 따른 해외진출국 다변화 전략 병행 필요
    - 투자수혜 예상 업종(인프라, 에너지, 금융 등) 및 진출국가별 리스크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투자전략(정부주도 vs 민간주도, 그린필드 vs M&A) 추진
- 또한, 전통적인 그린필드형 투자뿐 아니라 현지 네트워크 확보 및 빠른 시장진입이 용이한 M&A 방식의 투자도 적극 고려
  - M&A 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 대비 해외의 우수 인력·기술 및 현지 영업기반 확보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현지시장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바,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시 M&A 투자 병행 고려
    - 신성장동력산업 및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M&A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내산업의 구조고도화 도모 가능

- 외국인직접투자의 전략적 유치를 통해 고용창출 및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필요
-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나 시설 등에 대해 그린필드형 투자 등을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 및 지역경기 활성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선진 경영방식 및 기술 습득 등을 통한 시너지효과가 기대되는 부문(유통, 금융 등)에는 M&A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여 국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 도모
- 다만 외국기업의 무분별한 투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전략 구축과 더불어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필요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참고자료 1>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백만 달러)

| 구 분         | 2012          |           | 2013          |           | 2014          |           |
|-------------|---------------|-----------|---------------|-----------|---------------|-----------|
|             | 유출액           | 순위        | 유출액           | 순위        | 유출액           | 순위        |
| 미 국         | 311,347       | 1         | 328,343       | 1         | 336,943       | 1         |
| 홍 콩         | 83,411        | 4         | 80,773        | 5         | 142,700       | 2         |
| 중 국         | 87,804        | 3         | 101,000       | 3         | 116,000       | 3         |
| 일 본         | 122,549       | 2         | 135,749       | 2         | 113,629       | 4         |
| 독 일         | 66,089        | 6         | 30,109        | 10        | 112,227       | 5         |
| 러시아         | 48,822        | 8         | 86,507        | 4         | 56,438        | 6         |
| 캐나다         | 53,938        | 7         | 50,536        | 7         | 52,620        | 7         |
| 프랑스         | 31,639        | 11        | 24,997        | 15        | 42,869        | 8         |
| 네덜란드        | 5,235         | 32        | 56,926        | 6         | 40,809        | 9         |
| 싱가포르        | 15,147        | 20        | 28,814        | 12        | 40,660        | 10        |
| 아일랜드        | 15,286        | 19        | 23,975        | 16        | 31,795        | 11        |
| 스페인         | -3,982        | 186       | 25,829        | 14        | 30,688        | 12        |
| <b>대한민국</b> | <b>30,632</b> | <b>12</b> | <b>28,360</b> | <b>13</b> | <b>30,558</b> | <b>13</b> |
| 이탈리아        | 7,980         | 26        | 30,759        | 9         | 23,451        | 14        |
| 노르웨이        | 19,561        | 16        | 20,987        | 17        | 19,247        | 15        |
| 스위스         | 43,321        | 9         | 10,238        | 25        | 16,798        | 16        |
| 말레이시아       | 17,143        | 17        | 14,107        | 22        | 16,445        | 17        |
| 쿠웨이트        | 6,741         | 29        | 16,648        | 19        | 13,108        | 18        |
| 칠 레         | 17,120        | 18        | 7,621         | 29        | 12,999        | 19        |
| 대 만         | 13,137        | 21        | 14,285        | 21        | 12,697        | 20        |
| 스웨덴         | 28,952        | 13        | 28,879        | 11        | 12,156        | 21        |
| 덴마크         | 7,355         | 28        | 9,537         | 26        | 10,952        | 22        |
| 인 도         | 8,486         | 25        | 1,679         | 45        | 9,848         | 23        |
| 벨기에         | 33,985        | 10        | 17,940        | 18        | 8,534         | 24        |
| 태 국         | 10,487        | 24        | 12,122        | 24        | 7,692         | 25        |
| 오스트리아       | 13,109        | 22        | 16,216        | 20        | 7,690         | 26        |
| 인도네시아       | 5,422         | 31        | 6,647         | 31        | 7,077         | 27        |
| 필리핀         | 1,692         | 44        | 3,647         | 36        | 6,990         | 28        |
| 남아프리카공화국    | 2,988         | 37        | 6,649         | 30        | 6,938         | 29        |
| 카타르         | 1,840         | 42        | 8,021         | 27        | 6,748         | 30        |

<참고자료 2>

주요 국가별 해외직접투자 유입액

(백만 달러)

| 구 분         | 2012         |           | 2013          |           | 2014         |           |
|-------------|--------------|-----------|---------------|-----------|--------------|-----------|
|             | 유입액          | 순위        | 유입액           | 순위        | 유입액          | 순위        |
| 중 국         | 121,080      | 2         | 123,911       | 2         | 128,500      | 1         |
| 홍 콩         | 70,180       | 4         | 74,294        | 3         | 103,254      | 2         |
| 미 국         | 169,680      | 1         | 230,768       | 1         | 92,397       | 3         |
| 영 국         | 59,375       | 6         | 47,675        | 9         | 72,241       | 4         |
| 싱가포르        | 56,659       | 7         | 64,793        | 6         | 67,523       | 5         |
| 브라질         | 65,272       | 5         | 63,996        | 7         | 62,495       | 6         |
| 캐나다         | 39,266       | 11        | 70,565        | 4         | 53,864       | 7         |
| 호 주         | 55,802       | 8         | 54,239        | 8         | 51,854       | 8         |
| 인 도         | 24,196       | 14        | 28,199        | 15        | 34,417       | 9         |
| 네덜란드        | 17,655       | 19        | 32,039        | 14        | 30,253       | 10        |
| 칠 레         | 25,021       | 13        | 16,577        | 21        | 22,949       | 11        |
| 스페인         | 25,696       | 12        | 41,733        | 12        | 22,904       | 12        |
| 멕시코         | 18,951       | 17        | 44,627        | 10        | 22,795       | 13        |
| 인도네시아       | 19,138       | 16        | 18,817        | 19        | 22,580       | 14        |
| 스위스         | 15,989       | 22        | -22,555       | 207       | 21,914       | 15        |
| 러시아         | 50,588       | 9         | 69,219        | 5         | 20,958       | 16        |
| 핀란드         | 4,158        | 49        | -5,165        | 205       | 18,625       | 17        |
| 콜롬비아        | 15,039       | 24        | 16,199        | 22        | 16,054       | 18        |
| 프랑스         | 16,979       | 20        | 42,892        | 11        | 15,191       | 19        |
| 폴란드         | 7,120        | 42        | 120           | 151       | 13,883       | 20        |
| 태 국         | 9,168        | 35        | 14,016        | 24        | 12,566       | 21        |
| 터 키         | 13,283       | 27        | 12,357        | 26        | 12,146       | 22        |
| 이탈리아        | 93           | 164       | 25,004        | 16        | 11,451       | 23        |
| 말레이시아       | 9,239        | 34        | 12,115        | 27        | 10,799       | 24        |
| 아랍에미리트      | 9,602        | 31        | 10,488        | 30        | 10,066       | 25        |
| 스웨덴         | 16,334       | 21        | 3,571         | 49        | 10,036       | 26        |
| <b>대한민국</b> | <b>9,496</b> | <b>32</b> | <b>12,767</b> | <b>25</b> | <b>9,899</b> | <b>27</b> |
| 카자흐스탄       | 13,337       | 26        | 10,221        | 32        | 9,562        | 28        |
| 몰 타         | 12,061       | 29        | 9,575         | 33        | 9,279        | 29        |
| 베트남         | 8,368        | 37        | 8,900         | 35        | 9,200        | 30        |